

SeMA

Press Release Ver.1

2018. 12. 13.

홍보담당 김채하 학예연구사

Public Relations. Kim Chae Ha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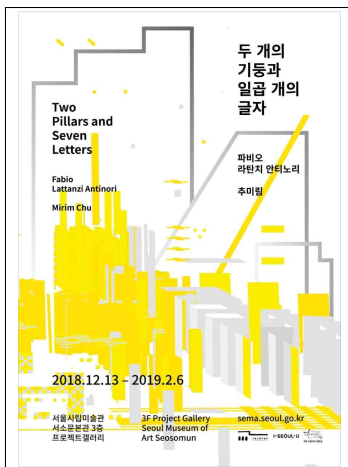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 semapress PW: sema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2018 하반기 기획전>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Two Pillars and Seven Letters



전시명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Two Pillars and Seven Letters
전시기간	2018. 12. 13.(목) ~ 2019. 2. 6.(수)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전시작가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Fabio Lattanzi Antinori), 추미림
부대행사	아티스트 토크 (상세 일정 미정)

핵심 개요

-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유독 강해지는 12월,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展 마련
-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눈부시게 발전한 데이터 처리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진화한 방법(과학, science)과 전통적인 방법(점성술, fortune telling)이 공존하는 동시대의 풍경을 보여주는 전시
- 두 작가의 출품작은, 미래를 예측하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태도가 데이터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토대를 지니며, 거대 자본을 꿈꾸는 산업 사회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활용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줌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직무대리 유병홍)은 2018년 하반기 프로젝트갤러리 기획전으로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두 개의 기동과 일곱 개의 글자>展(2018. 12. 13. ~ 2019. 2. 6.)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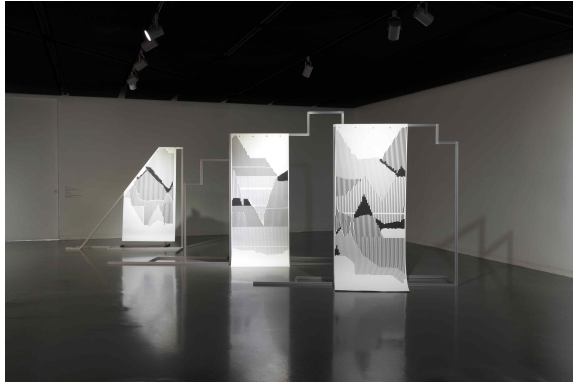
- 2018년 8월, 한국 정부는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앞서 미래 산업의 원유를 ‘데이터’로 선언했다. 데이터 법규에 관한 위와 같은 인식은 데이터가 일상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근거한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고,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있어 왔다는 점이 과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모든 ‘데이터’는 구체적인 활용의 목적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이끄는 부동산 가격, 재구매율, 주가 변동 추이, 비트코인 등과 점성술, 명리학 등의 정보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예측하려는 무모함과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한 욕망을 기반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 욕망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통적 미래 예측,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방식으로 투사되며 정보의 홍수를 양산해 낸다. 이 시점에서 표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욕망이 상실될 경우, 그 정보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개의 기동과 일곱 개의 글자>전은 관람객이 데이터의 휘발성과 탄성을 체험하며 우리 사회에 펼쳐져있는 정보들의 유의미성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는 현대미술의 다원적 요소로 디지털 사회에 난무한 다양한 현상을 드러내는 작가다. 상하이 현대 미술관의 전시(2016)에서는 <포춘 텔러(Fortune Teller)>라는 작품으로 상해 증권 거래소의 결과 예측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미학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동향에 맞춰 국내 성악가들과의 협력으로 제작한 신작 <퓨처 서치(Future Search)>를 선보인다. 로마와 런던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체감한 각 도시의 과학적 예측 방법론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시장 내에서 높은 가치로 여겨지는 단어들의 유의미성을 다뤘다. 전시장에 놓인 불규칙적 모양의 구조물 위에는 바코드와 같은 흑백의 패턴이 출력된 종이가 걸려 있다. 관람객이 다가가 종이에 손을 대거나 움직이면 작품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다채로운 화음의 소리를 낸다. 작품이 재생하는 소리는 한국의 젊은 성악가들이 숫자와 기호를 모든 음역으로 녹음한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관람객의 지휘에 따라 모두 다른 화음으로 연주된다. <퓨처 서치>는 현대인들의 잠재적 욕망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데이터의 무의미성을 청각과 촉각으로 드러낸다.

□ 추미림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믿고 따르는 풍수지리의 요건과 기준이 시대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로젝트 갤러리를 풍수지리의 조건으로 해석하여 구현한 설치 작품 <9가지 컬러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을 풍수학의 각 요소에서 추출한 9가지의 색의 스펙트럼으로 분할하고 현대의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나타나는 전자파의 움직임, 용량을 차지하는 픽셀의 모양에 모든 스펙트럼을 중첩시켜 벽과 바닥에 이어 붙였다. 입체를 표방하는 작품의 모든 요소는 평면의 시트지로 제작된다. 특히 본 작품은 전시장의 구조와 규모에 맞춤형 설계, 설치된 장소-특정적 작품으로, 전시의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9가지 컬러 스펙트럼>의 물성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탄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정보를 은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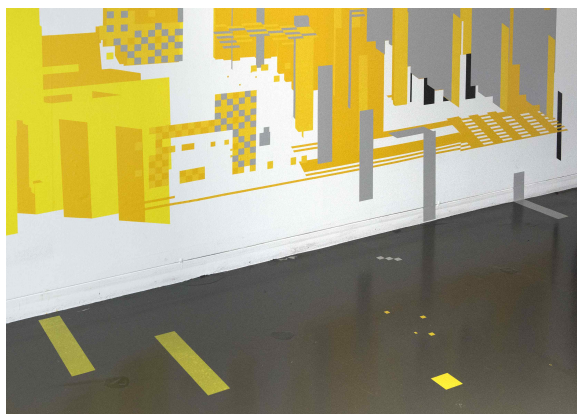
□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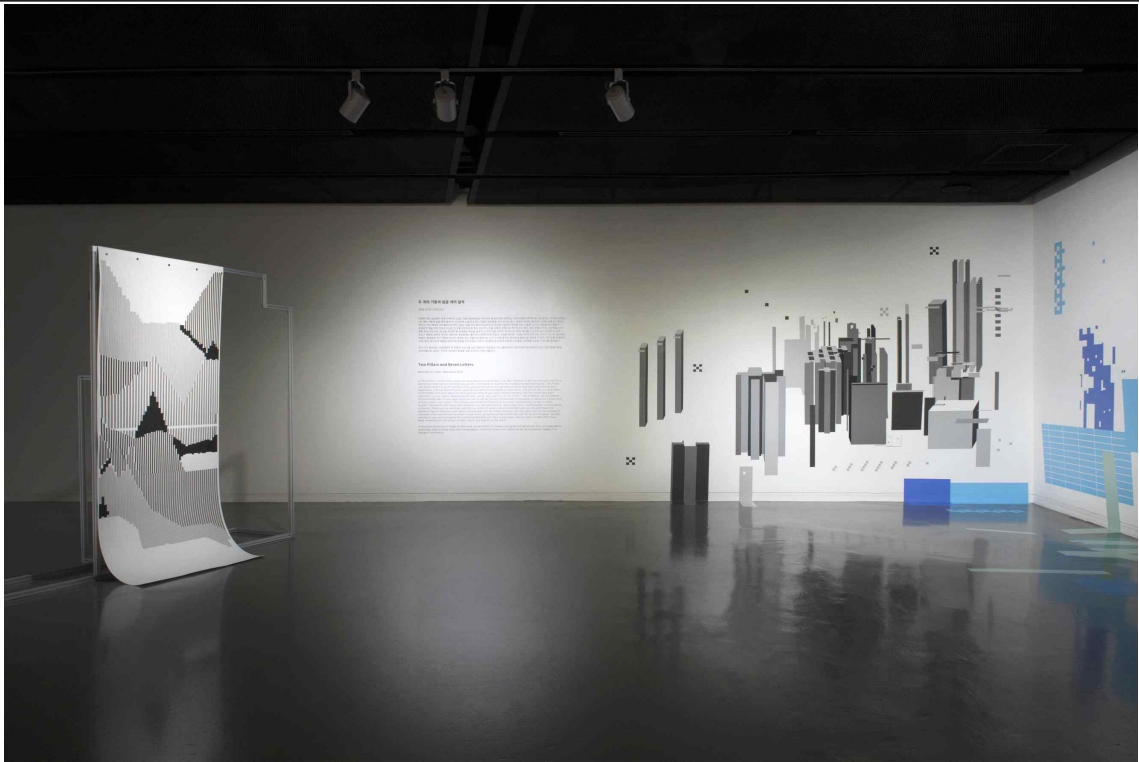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퓨쳐 서치*, 2018, 3개의 구조물, 스크린 프린트, 전도성 페인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2채널 스피커, 가변설치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전경



추미림, *9가지 컬러 스펙트럼*, 2018, 시트지, 22x3.7m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전경



추미림, *9가지 컬러 스펙트럼*, 2018, 시트지, 22x3.7m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내 작품 세부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전경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전경

□ 참여작가 정보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Fabio Lattanzi Antinori

1971 이탈리아 출생, 런던 거주 및 활동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는 조각, 인쇄물,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 왔으며, 주로 기업 시스템의 통제, 시스템이 개인의 믿음 체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가상 공유 시스템과 기술의 역할에 매혹되었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신뢰의 개념과 연계하여 국제 금융, 가치, 통화를 다루기도 했다. 최근 작품은 과학과 기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미래의 개념을 예측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작가는 디지털 기술의 비가시적인 영역의 요소를 작품에 통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정보를 가시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정보의 체계를 구현하고자 대개 협업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특히 엔지니어, 디자이너, 영국과 중국의 오페라 가수, 데이터 분석가, 과학자, 조향사, 경제학자, 금융 점성술사, 역술인과 협업해왔다. 작가에게 협업은, 빠르게 변하는 시스템간의 복잡한 요소들을 성장시키고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추미림

1982 서울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추미림은 디자인의 픽셀을 작업 요소로 활용하며 디자인과 순수미술을 넘나드는 조형적 실험을 지속해왔다. 주로 컴퓨터 그래픽, 픽셀, 인터넷 등의 키워드를 비평적으로 탐구하며 SNS에서 이미지가 소비되는 현상의 단면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을 생산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특히 작가는 모든 작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웹 기반의 사회를 일련의 이미지로 변모시킴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의 풍경을 직설적으로 선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시대 젊은 세대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1

SeMA 프로젝트갤러리 2018 하반기 기획전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기본 정보****주 최 서울시립미술관****전시담당** 이지민 학예연구사 sema.jimin@seoul.go.kr / 02-2124-8942**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el 02-2124-8946, Fax 02-2124-8950**관람시간** 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뮤지엄나이트(매월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2:00**관람료** 무료**홍보문의** 김채하 학예연구사 chaeha@seoul.go.kr / 02-2124-8928**관련 이미지 다운로드**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